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by J.K.롤링)

제 7장 마법의 모자

성문이 금방 뚫 열리더니 에머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새카만 마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찌나 엄격해 보였던지 해리는 그녀가 전혀 웃을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입니다, 맥고나걸 교수님.” 해그리드가 보고했다.

“고마워요, 해그리드. 여기서부터는 내가 데려갈게요.”

그녀는 문을 당겨서 활짝 열었다. 현관 안의 홀이 어찌나 큰지 더즐리네 집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다. 돌 벽은 그린고트에 있는 것과 같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으며, 앞에 있는 장대한 대리석 계단은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 돌이 깔린 바닥을 지나갔다. 해리는 오른쪽 현관에서 수백 명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학년들도 도착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홀을 지나 1학년들을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서로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 다닥다닥 붙어 서서, 맥고나걸 교수를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호그와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인사를 했다. “학기 시작을 축하라는 연회가 곧 시작되겠지만, 연회장에 자리를 잡기 전에, 기숙사 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숙사 배정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은, 같은 기숙사 동료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들과 수업도 함께 듣고, 잠도 같이 자며, 기숙사 학생 휴게실에서 함께 자유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는 그린핀도르, 후플푸프, 래번클로, 그리고 슬리데린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각 기숙사에는 나름대로의 훌륭한 역사가 있으며 각각 다 뛰어난 마녀와 마법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은 여러분이 속한 기숙사의 점수를 높일 것이고, 어떤 규칙이든 어기게 되면 감점이 될 것입니다. 학년 말에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기숙사에게 굉장한 영예로운 상인 우승컵이 수여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속한 기숙사의 명예를 빛내기 바랍니다. 기숙사 배정식은 몇 분 뒤 전교생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모두 가능한 한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길 바랍니다.”

.

어쩌면 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야만 할지도 몰라. 해리는 무턱대고 그런 종류의 시험일 거라고 생각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모두 그 모자에 쏠려 있었다. 잠시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그 모자가 썰룩거렸다. 그리고는 모자 테두리 부분의 해진 곳이 입처럼 넓게 벌어지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멋진 모자를 찾을 수 있다면
난 나를 그냥 먹어 버릴 거예요.

까만 중절모를 써도 좋고,
 맵시 있고 높은 신사모자도 괜찮아요.
 난 호그와트의 기숙사를 배정하는 마법 모자예요.
 나는 모든 모자들을 다 덮어 버릴 수 있어요.
 당신 머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숙사를 배정하는 마법 모자는 모두 볼 수 있어요.
 나를 써 봐요 그러면 말해 줄게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은 그린핀도르에 속할지도 몰라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기사도 정신은
 그린핀도르의 특징이죠.
 당신은 후플푸프에 속할지도 몰라요,
 그곳 사람들은 정의롭고 성실하죠,
 참을성 있는 후플푸프 사람들은 진실하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현명하고 사려 깊은 래번클로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어요.
 또 슬리데린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의 재간꾼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날 써 보세요! 겁내지 말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아요!
 마음 폭 놓고 내 손에 맡겨요(내게 손은 없지만요).
 나는 생각하는 모자니까요!

제 12장 소망의 거울

필치와 스네이프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으므로, 해리는 그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런 영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해리는 터져 나오는 비명을 억누르기 위해 양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의 가슴은 제한구역의 책이 비명을 질렀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뛰고 있었다..... 그 거울에 나타난 영상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 방엔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헐떡이면서, 천천히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뒤에는 적어도 열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

다. 해리는 어깨를 넘겨다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아니면 그들도 모두 보이지 않는 걸까? 그는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방에 있는 것이고, 이 거울은 보이는 사람이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건 그 모습을 비추는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의 영상 바로 뒤에 서 있는 어떤 여자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머리 뒤로 손을 뻗어 휘저어 보았다. 만일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다면, 그녀를 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상이 서로 너무 붙어 있기 때문인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거울 속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머리카락은 진한 빨간색이었고 눈은..... 내 눈과 똑같네, 해리는 그 거울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와 똑같은 모양의 연한 초록색 눈, 하지만 그때 해리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울고 있었다.

옆에는 키가 크고 마르고 머리카락이 까만 남자가 그녀에게 팔을 두르고 서 있었다. 남자는 안경을 썼으며,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해리의 머리처럼 뒤로 쪽 비어져 나와 있었다.

해리는 코가 거의 거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엄마?”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들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그 거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본 해리는, 자기 눈과 똑같은 초록빛 눈과 자기 코와 똑같은 다른 코들을 보았고, 심지어 해리와 똑같이 무릎뺀가 툭 튀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약간 나이 든 사람도 보았다..... 해리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 가족을 보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해리는 전보다 길을 더 빨리 찾았다. 그는 너무나 빨리 걷고 있어서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큰 소음을 내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만나지는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다시 그에게 미소 짓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해리는 거울 앞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해리가 여기에서 가족과 밤새도록 함께 지내는 걸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단지.....

“그래서..... 다시 왔구나, 해리?”

해리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다보았다. 벽 옆에 있는 책상 위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걸터앉아 있었다. 해리는 거울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머지 그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지나쳤던 게 틀림없었다.

“전..... 전 교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투명해지면 눈도 나빠지는 게 신기하지.”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그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러니까.” 덤블도어가 책상에서 내려와 해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너도, 앞서 다녀갔던 수백 명과 마찬가지로, 소망의 거울에서 기쁨을 발견한 게로구나.”

“전 이 거울의 이름이 그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지금쯤 깨달았을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제 가족을 보여 줘요.....”

“그리고 학생 회장이 된 네 친구 론의 모습도 보여 줬지.”

“어떻게 아셨어요?”

“난 굳이 망토를 입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단다.”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소망의 거울이 우리 모두에게 무얼 보여 준다고 생각하니?”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설명해 주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의 거울을 보통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단다. 즉, 그것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말이다. 도움이 됐니?”

해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 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구나.”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 바로 그것을 보여 준단다. 넌 네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네 주위에 그들이 서 있는 걸 보았고, 론 위즐리는 항상 형들에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형들보다 더 잘되어 혼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지. 그러나 이 거울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진실은 보여 주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이 거울이 보여 주는 게 진짜인지 혹은 심지어 가능한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본 것에 넋을 잃거나 미쳐서, 이 거울 앞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냈지.

이 거울은 내일 다른 장소로 옮길 예정이란단, 해리. 그러니 이것을 다시는 찾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구나. 그리고 만일 이 거울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게다. 꿈에 집착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자, 이제, 저 훌륭한 망토를 다시 입고 침실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해리는 일어섰다.

“덤블도어 교수님, 뭐 좀 여쭙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방금 물었잖니.” 덤블도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하나 더 물어도 좋다.”

“교수님은 이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나? 나는 두꺼운 양모 양말 한 켤레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해리가 뻘뻘 바라보았다.

“양말은 많을수록 좋거든.” 덤블도어가 말했다. “크리스마스가 또 왔다 갔는데 양말은 한 켤레도 받지 못했단다. 사람들은 끝까지 내게 책 선물만 주려고 할 거야.”

해리는 침대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덤블도어가 어찌면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뒤 해리는 자기 베개 위에서 잠자고 있던 스캐버스를 밀어내며,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했다.